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 분해 분석

Decomposition Analysis of Regional Government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 or Decrease

이상춘(Sang-Chun, Lee)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김윤선(Yoon-Sun, Kim)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 론 |
| II. FDI 현황 및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모형 및 추정결과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 외국인직접투자(FDI), 변이비중모형, 증감요인

I. 서론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자본, 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효과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고용 창출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수지 개선효과 등이 제고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에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경쟁에 임하고 있다. 선진국을 제외한 중국과 홍콩으로의 투자비중이 크고 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잔고(stock)도 소폭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상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경제발전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경제 환경으로의 변모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우리나라 지역별-산업별 유치실적을 통해 산업의 구조적 모형을 분해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목적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자로 Dunning(1988, 1993)가 대표적이는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투자유치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촉진하게 되는 경로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각 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치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전략적 지역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변이-비중 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는지의 여부를 산업내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며, 이것을 국가성장효과(National Share Effect : NS),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Share Effect : IS),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 RS)로 구분해 결과로 도출한다. 즉,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도권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전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의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의 원인을 세 가지(NS, IS, RS)로 구분한다. 변이-비중 분석에 대한 연구로 Ghali, et al(1981), Arcelus(1984)과 국내 연구자로 Lee, Cheong, and Kim(2009)은 2003~2006년 기간 중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분해 분석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수도권과 비수도권)로 유입되는 기초자료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2011년까지의 이에 대한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요인으로 분해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는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등과 같은 음으로 쓰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우리나라기업이 투자를 받게 된 경우를 외국인직접투자¹⁾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²⁾.

II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모형 및 데이터를 설명한다. 마지막 IV장에서는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찾으려 하였다.

II. FDI(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황 및 선행연구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UN무역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 따르면 2010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흐름은 1조 2천 4백억 달러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경제 위기 이전의 평균보다는 15% 가량 낮고,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산업생산량 및 무역량을 대조했을 때 2013년에는 최고조였던 2007년 수준까지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또 다른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하다.³⁾

<표 1>에서와 같이 2011년 기준 세계 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inward stock) 금액은 2000년에 비해 12조9천8백81억7천7백만달러 증가한 20조4천3백81만9천9백만달러로 이 중 선진국으로의 유입이 63.9%, 나머지 개발도상국으로 6조6천2백50억3천2백만달러 (32.4%)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본 연구에서는 이하 FDI와 함께 표현

2) 산업자원부(2006. 3)

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표 1〉 지역별 FDI 유입-유출 금액(저량)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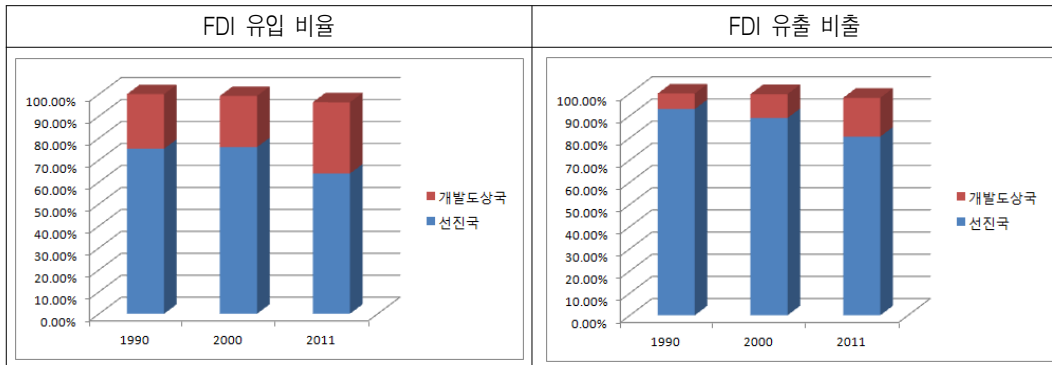
지역/경제	FDI 유입			FDI 유출		
	1990년	2000년	2011년	1990년	2000년	2011년
세계	2,081,147	7,450,022	20,438,199	2,092,927	7,952,878	21,168,489
선진국	1,563,939	5,653,715	13,055,903	1,946,833	7,074,435	17,055,964
프랑스	97,814	390,954	963,792	112,441	925,925	1,372,676
독일	111,231	271,613	713,706	151,581	541,866	1,441,611
이탈리아	59,998	122,533	332,664	60,184	169,957	512,201
영국	203,905	438,631	1,198,870	229,307	897,845	1,731,095
스위스	32,245	86,804	583,455	66,087	232,161	991,966
캐나다	12,843	212,716	595,002	84,807	237,639	670,417
미국	539,601	2,783,235	3,509,359	731,762	2,694,014	4,499,962
호주	80,364	118,858	499,663	37,505	95,979	385,470
일본	9,850	50,322	225,787	201,441	278,442	962,790
개발도상국	517,200	1,735,488	6,625,032	146,094	857,107	3,705,410
중국	20,691	193,348	711,802	4,455	27,768	365,981
홍콩	201,653	455,469	1,138,365	11,920	388,380	1,045,920
한국	5,186	43,738	131,708	2,301	21,497	159,339
싱가포르	30,468	110,570	518,625	7,808	56,755	339,095
인도	1,657	16,339	201,724	124	1,733	112,257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유출된 외국인직접투자(FDI outward stock) 금액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3조2천1백56만1천1백만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잔고기준으로 선진국 80.6%, 개발도상국 17.5%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계 투자규모가운데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의 유입 및 유출 규모는 1990년 당시 선진국에서의 투자 유입 및 유출은 각각 75.1%와 93.0%이었으나 1990년-2000년-2011년에 걸쳐 선진국에서 유입과 유출 규모가 점차 작아져 2011년에는 63.9%,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유입, 유출 규모는 1990년 7.0% FDI 유출이 있었으나 2011년에는 17.5%까지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과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외자 유인책 마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개발도상국가는 신시장과 신기술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단위 : %]



<그림 1> 선진국 및 개도국으로의 FDI 유입-유출 추세(저량)

이 가운데 미국이 유입-유출 각각 17.1%, 21.26%로 국가별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입의 경우 영국, 홍콩, 프랑스 등이 5%를 전후하여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중이 1%에 그치고 있으나 1990년에 비해 2011년 현재는 25배가 넘는 투자금액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로 유입된 투자액은 세계 투자금액 증가율 기준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투자금액의 증가분보다 우리나라로의 투자유치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각지로 유입되는 FDI 가운데 산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산업유형에 따른 FDI 현황(2005년~2011년)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금액(비중)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5년~2007년(평균)	130 (8)	670 (41)	820 (50)
2008년	230 (10)	980 (42)	1,130 (48)
2009년	170 (13)	510 (39)	630 (49)
2010년	140 (11)	620 (50)	490 (39)
2011년	200 (14)	660 (46)	570 (40)

주 : 국가간 M&A와 GreenField 포함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표 2>에서는 전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2011년의 FDI 현황을 살펴보면 증가세를 보이던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2008년 이후 투자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세계경기 침체로부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세계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으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던 추세에 견주어 보았을 때 서비스산업의 경우(금액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 다소 상승했으나 2008년에 비해 현저한 상황이고, 제조업은 2008년 이후 2009년에 급감했다가 2010년과 2011년에 점차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로 유입된 FDI를 지역별-산업로 구분했을 때 FDI 현황을 살펴본다. <표 3>에서는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를 각 산업으로 구분해 추세를 살펴보았다.

<표 3> 주요 업종별 FDI

[단위 : 백만달러, %]

업종		2009년	2010년(증감율) ¹⁾	2011년(증감율) ²⁾
신고기준	제조업	3,725	6,658 (78.7)	5,653 (Δ15.1)
	- 전기전자	1,798	1,561 (Δ13.2)	1,746 (11.8)
	- 기계장비	178	407 (128.7)	503 (23.4)
	- 화공	204	927 (354.4)	1,831 (97.6)
	서비스업	7,594	6,302 (Δ17.0)	7,270 (15.4)
	- 금융보험	1,252	960 (Δ23.3)	1,742 (81.5)
	- 도소매(유통)	2,204	965 (Δ56.3)	1,743 (55.1)
도착기준 (잠정)	제조업	2,409	2,360 (Δ2.0)	2,949 (25.0)
	서비스업	4,289	2,971 (Δ30.7)	3,408 (14.7)

주1), 2) :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가운데 2009년까지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으로의 투자유입이 두배 가까이 앞서고 있으나, 2009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제조업은 증가(도착기준)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기계장비, 화공 분야의 투자가 매우 크게 증가했고, 서비스업에 도·소매(유통) 비즈니스서비스가 200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표 4> 규모별 FDI(도착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FDI(비중)					2011년 FDI(비중)					증감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억달러 이상	603 (39.1)	1,872 (67.1)	1,748 (59.6)	3,227 (55.6)	7,451 (57.0)	388 (19.3)	1,373 (40.9)	803 (36.2)	3,654 (60.1)	6,218 (45.5)	△16.5
1억달러 미만	938 (60.9)	919 (32.9)	1,184 (40.4)	2,580 (44.4)	5,620 (43.0)	1,617 (80.7)	1,986 (59.1)	1,417 (63.8)	2,430 (39.9)	7,451 (54.5)	32.6
1천만달러~ 1억달러	641 (41.6)	552 (19.8)	835 (28.5)	2,113 (36.4)	4,141 (31.7)	1,132 (56.4)	1,458 (43.4)	965 (43.5)	1,809 (29.7)	5,364 (39.2)	29.5
1백만달러~ 1천만달러	215 (14.0)	283 (10.1)	266 (9.1)	372 (6.4)	1,136 (8.7)	391 (19.5)	430 (12.8)	339 (15.3)	511 (8.4)	1,670 (12.2)	47.0
1백만달러 미만	82 (5.3)	84 (3.0)	83 (2.8)	95 (1.6)	314 (2.06)	95 (4.7)	98 (2.9)	113 (5.1)	111 (1.8)	417 (3.1)	32.8
전 체	1,541	2,791	2,932	5,807	13,071	2,005	3,360	2,220	6,084	13,669	4.6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표 4>에서는 규모별 FDI를 1억달러 이상 대형 투자는 전년 대비 16.5% 감소한 62억1천8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1억달러 미만 투자는 32.6% 증가한 74억5천1백만달러를 기록했다. 1억달러 이상 대형 투자의 비중은 전체의 45.5%를 차지하였고, 1천만달러 이상 1억달러 미만 중형 투자의 비중은 39.2%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중형 투자가 25억6천5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비중 45.4%), 1억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23억4천5백만달러를 기록(비중 41.5%), 서비스업의 경우, 1억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32억6천2백만달러(비중 44.9%), 중형 투자가 26억9천1백만달러(비중 37.0%)을 기록하고 있다.

<표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FDI 실적(도착기준)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		증감률	1962~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161	6,746	2,065	5,406	1,751	6,396	18.3	27,376	119,879
수도권	1,748	4,475	1,628	3,539	1,305	3,829	8.2	18,344	61,172
서울특별시	989	3,300	983	2,131	829	2,456	15.3	12,557	45,659
경기도	497	622	439	1,019	367	1,108	8.7	4,157	12,279

구분	2009년		2010년		2011		증감률	1962~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천광역시	264	553	206	389	111	265	△31.9	1,677	3,234
비수도권	405	2,270	425	1,867	393	2,426	30.0	3,361	22,363
부산광역시	82	84	83	103	85	116	13.4	763	1,812
대구광역시	58	83	61	75	56	64	△15.4	408	524
광주광역시	14	7	21	20	16	77	288.5	152	183
대전광역시	21	194	20	362	14	115	△68.1	168	1,426
울산광역시	13	277	16	35	11	310	780.2	107	1,368
강원도	12	15	16	50	12	15	△70.5	132	697
충청북도	34	886	29	196	19	180	△8.4	259	3,468
충청남도	47	337	43	406	39	441	8.4	324	5,424
전라북도	13	52	21	37	16	50	35.7	149	814
전라남도	22	55	23	26	34	310	1,106.4	223	1,313
경상북도	24	144	35	420	26	555	32.2	200	3,309
경상남도	62	131	53	71	51	82	14.6	428	1,797
제주도	4	7	7	65	15	112	71.7	63	228
미정 ¹⁾	8	1	12	1	53	141	15,955.3	5,671	36,344

주1) : 투자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집계함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FDI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전체 금액 63억9천6백만달러로 2009년과 2010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감소분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은 감소했으나 2011년에는 2009년의 FDI 실적을 회복했는데 부산과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매년 FDI 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 대전, 강원도,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09년의 FDI 실적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 FDI 경제적 효과

우선 FDI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고용, 국제수지, 기술이전에 의한 생산성 효과, 경영자원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효과, 투자증대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중에서 고용효과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선진국이든 혹은 개발도상국이든 자국의 고용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고용창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로서 투자유치국으로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었을 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자 유치국의 수출증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 간접적으로 거시경제적 고용효과가 창출된다.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과 현지기업간의 관계에 의한 전·후방 파급효과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가 직접고용창출 효과보다 더 크다.⁵⁾

또한, 투자 유치국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고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추진한 나라는 자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고용증대효과가 크지만,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이용할 경우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유치되어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효과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자본수지의 경우 대규모 직접투자 자본이 해외로부터 유입됨으로써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직접투자 자본은 차입형태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사업을 목표로 들어오는 자본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로열티 지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내부간 기술이전에 대한 경우나 조세, 환리스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로열티 지불은 기술자립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기술이전에 따른 생산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상의 기술, 인적자원 등 일괄적으로 함께 투자 유치국으로 이전된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도화된 기술 등을 이전받게 된다면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선진국간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투자유치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①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된 현지인의 학습(learning by doing)이나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 현지국의 다른 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다. ②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후방파급효과(backward spillover/linkage effect)의 기술파급효과가 나타난다. 후방연계효과는 현지자회사가

4) 최병렬(2004)

5) 전방파급효과는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와 관련하여 유통업, 서비스업 등에 의한 파급효과를 말하고, 후방파급효과는 현지자회사에게 원료, 중간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현지공급업체들로 인한 파급효과를 말한다.(최병렬(2004) 재인용)

중간재 등을 현지 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최종제품의 양호한 품질을 위해서 하청업체에 대해 기술지도 및 이전을 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후방연계효과가 가능한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잠재적인 후방연계에 의한 공급자들의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공급자들이 생산에서 부품 및 설비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공급자들이 원자재 및 부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경영 및 조직관리상에 있어서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등에 이유에서이다. ㉤전방과급효과(forward spillover/linkage effect)에 의해서도 기술과급효과가 나타난다. 전방연계효과는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 형태로 다른 현지기업의 완제품에 투입됨으로써 기술력이 향상됨을 말하는데 투자유치국의 현지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객으로서 공급자와 구매자라는 밀접한 관계를 통해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어 후방연계 효과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경영자원확보 효과를 말할 수 있다. 특히 노동력에 체화된 기술과 같은 경영자원은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자원이 일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자국의 부족한 경영자원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국 시장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현지의 경쟁구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쟁제고 효과는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다섯째, 투자증대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의 유입에 의한 국내투자의 증가는 승수효과를 나타내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현지국의 유희자원과의 결합을 통해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자본조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 금융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투자 유치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우라면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 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활동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정부의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정부의 조세수입은 다시 민간부문에 지출되기 때문에 현지국의 투자가 증가해 승수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재정상의 특혜 제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외 기업이 투자를 행한다는 입장만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절에서 다루게 되는 이론적 설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총칭하는 직접투자의 이론적 설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Ⅲ. 모형 및 추정결과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FDI 실적 결과를 토대로 변이-비중 분석(Shift-Share Analysis)방법을 이용해 FDI 증감요인을 산업구조를 통해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변이-비중분석에서는 고용, 소득 등과 같은 지역경제 지표를 이용해 기준년도와 비교년도 사이의 지역의 성장부분을 측정하고, 성장의 요인을 항등식을 이용하여 할당요인과 변이요인 즉, 지역 외적인 요인에 의한 성장과 지역 내적인 요인에 의한 성장으로 나누어 식을 분해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것이라는데 근본적인 이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금액의 증가는 예컨대,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10%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10%의 성장률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인 할당요인과 변이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가성장효과(National Share Effect : NS)를 나타낼 수 있다. (식 1)과 같이 분석기간 동안 국가경제 성장으로 인해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증가하게 됨을 뜻한다. 즉,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이 지역에도 똑같이 유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성장효과를 말한다.

두 번째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 IM)는 전국적으로 i 산업의 총성장률에서 전국의 모든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뺀 전국 i 산업의 순 성장률이 j 도시 i 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부가가치 또는 고용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의 구성비가 큰 경우 그 지역은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산업의 구성비가 작은 지역보다 빨리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식 2)와 같다.

마지막으로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 RS)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비한 j 도시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입지적 특성, 즉 시장의 입지, 수송의 편익, 인구유입, 기타 산업입지요소를 반영하는데 j 지역 i 산업의 총성장률에서 전국의 i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뺀 j 지역 i 산업의 순 성장률을 말한다. 즉 해당지역과 전국의 다른 지역과의 산업적 위치조건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 지역이 지니는 특성의 상대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 3)과 같다.

$$\text{지역총성장(SS)} = \text{NS} + \text{IM} + \text{RS} \quad (\text{식 1})$$

$$\text{NS} = \text{LOCAL}_i^{t-1} \cdot \text{KOR}^t / \text{KOR}^{t-1} \quad (\text{식 2})$$

$$\text{IM} = (\text{LOCAL}_i^{t-1} \cdot \text{KOR}_i^t / \text{KOR}_i^{t-1}) - \text{NS} \quad (\text{식 3})$$

$$\text{RS} = \text{LOCAL}_i^{t-1} \cdot (\text{LOCAL}_i^t / \text{LOCAL}_i^{t-1} - \text{KOR}_i^t / \text{KOR}_i^{t-1}) \quad (\text{식 4})$$

LOCAL_i^{t-1} : 2009년(기준년도) i산업의 우리나라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금액

LOCAL_i^t : 2010년(또는 2011년 비교년도) i산업의 우리나라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금액

KOR^{t-1} : 2009년(기준년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금액

KOR^t : 2010년(또는 2011년 비교년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금액

KOR_i^{t-1} : 2009년(기준년도) 우리나라 i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금액

KOR_i^t : 2010년(또는 2011년 기준년도) 우리나라 i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금액

2009년, 2010년과 2011년을 각각 비교한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하여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충청, 강원, 전라, 제주 등을 포함하는 비수도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FDI 현황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의 FDI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유입 요인을 본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표 6> 우리나라 FDI 업종별 투자 실적(도착기준)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2009		2010		2011		1962~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2,161	6,746	2,065	5,406	1,751	6,396	27,376	119,879
농·축·수산·광업	11	14	14	2	12	3	158	552
제조업	385	2,409	388	2,360	386	2,949	6,632	53,403
식 품	16	51	13	16	16	138	329	3,264
섬유·직물·의류	16	52	20	82	11	10	374	945
제지·목재	3	2	3	0	4	2	113	1,499
화 공	49	249	48	276	64	808	875	9,835
의 약	6	30	5	629	10	37	132	1,463
비금속광물	10	112	11	173	10	89	217	2,522

구분	2009		2010		2011		1962~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속	27	128	37	152	38	473	479	3,047
기계·장비	58	140	54	215	56	256	980	5,038
전기·전자	133	986	133	736	117	597	1,985	17,214
운송용기계	50	622	45	75	49	521	631	7,839
기타제조	17	36	19	6	11	17	519	737
서비스업	1,742	4,289	1,636	2,971	1,331	3,408	20,260	63,756
도·소매(유통)	1,116	1,881	936	665	717	800	13,496	12,978
음식·숙박	160	11	206	21	115	30	1,238	2,397
운수·창고(물류)	75	152	78	193	81	111	706	3,280
통신	5	1	6	21	3	1	124	2,748
금융·보험	70	711	55	764	73	918	837	27,655
부동산·임대	69	305	52	359	50	372	447	3,959
비즈니스서비스업	197	1,162	245	843	237	1,018	2,741	8,878
문화·오락	19	8	24	77	26	83	257	1,407
공공·기타서비스	31	57	34	28	29	74	415	455
전기·가스·수도·건설	23	34	27	73	22	37	327	2,168
전기·가스·수도	12	29	9	69	8	23	66	1,135
건설	11	5	18	4	14	14	261	1,033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상기의 <표 6>은 우리나라 FDI 업종별 투자 실적(도착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투자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이고, 나머지 금융보험(서비스) 및 화공(제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62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FDI 누적 금액상으로는 금융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전자전기, 도소매(유통)정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별-산업별 변이비중 분석을 위하여 2장의 <표 5>는 우리나라 FDI 지방자치단체별 투자 실적(도착기준)을 활용한다. 이 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된 것으로 지역별로 발표된 자료가 현재 보이는 2009년, 2010년, 2011년과 1962년~2011년까지의 총액 외에는 다른 기간의 자료와 지역별-산업별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표 6>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별-산업별 투자유치금액을 가상으로 구하여 적용<표 7, 8, 9>한다.

적용방법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외국인직접투자 등록기업에 대한 등

록일자를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으로 구분하여 기업체 등록 주소와 표준산업분류(중분류)로 기업체수에 대한 산업별-지역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우리나라 지역별-산업별 등록기업에 대한 비중을 지식경제부에서 제공하는 각 자치단체별 유치총액에 대입하여 지역별-산업별 투자유치금액(추정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 결과는 <표 7, 8, 9>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으로 구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별 투자 유치 실적을 계산하였다.

<표 7> 2009년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의 산업별 투자유치 실적(추정금액)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0.54	12	37	0.28	5	13	1.78	7	40
제조업(식품)	0.47	10	31	0.38	7	17	0.89	4	20
제조업(섬유직물의류)	0.78	17	52	0.66	12	30	1.33	5	30
제조업(제지목재)	0.16	3	10	0.19	3	8	0.00	0	0
제조업(화학)	1.63	35	110	0.85	15	38	5.33	22	121
제조업(의약)	0.23	5	16	0.19	3	8	0.44	2	10
제조업(비금속광물)	0.08	2	5	0.00	0	0	0.44	2	10
제조업(금속)	1.17	25	79	0.47	8	21	4.44	18	101
제조업(기계장비)	2.88	62	194	2.07	36	93	6.67	27	151
제조업(전기전자)	4.90	106	330	4.43	77	198	7.11	29	161
제조업(운송용기계)	1.71	37	115	0.75	13	34	6.22	25	141
제조업(기타제조)	0.70	15	47	0.75	13	34	0.44	2	10
서비스(도매, 소매업)	56.53	1,222	3,814	59.85	1,046	2,678	40.89	166	928
서비스(음식숙박)	7.23	156	488	7.54	132	337	5.78	23	131
서비스(운수창고물류)	3.97	86	268	3.68	64	164	5.33	22	121
서비스(통신)	0.23	5	16	0.28	5	13	0.00	0	0
서비스(금융보험)	2.10	45	142	2.17	38	97	1.78	7	40
서비스(부동산임대)	2.33	50	157	2.54	44	114	1.33	5	30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9.02	195	609	9.90	173	443	4.89	20	111
서비스(문화오락)	0.86	18	58	0.94	16	42	0.44	2	10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1.56	34	105	1.41	25	63	2.22	9	50
전기, 가스, 수도사업	0.39	8	26	0.09	2	4	1.78	7	40
건설업	0.54	12	37	0.57	10	25	0.44	2	10
총계	100.00	2,161	6,746	100.00	1,748	4,475	100.00	405	2,270

주1, 2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등록기업 등록기간별 비중. 이에 따라 투자금액은 추정된 금액임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표 7>과 같이 2009년의 지역별 산업별 투자유치 실적(추정금액)을 살펴보면 제조업분야의 제조업(화학, 금속, 기계장비, 운송용기계), 전기, 가스, 수도사업 분야에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금액(추정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는 제조업분야 제조업(전기전자), 서비스분야의 서비스(도매·소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2010년과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표 8> 2010년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의 산업별 투자유치 실적(추정금액)

[단위 : %, 건, 백만달러]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농업업 및 어업광업	0.79	16	43	0.52	8	18	2.18	9	41
제조업(식품)	0.43	9	23	0.52	8	18	0.00	0	0
제조업(섬유직물류)	0.79	16	43	0.77	13	27	0.87	4	16
제조업(제지목재)	0.14	3	8	0.17	3	6	0.00	0	0
제조업(화학)	1.87	39	101	1.29	21	46	4.80	20	90
제조업(의약)	0.22	4	12	0.17	3	6	0.44	2	8
제조업(비금속광물)	0.50	10	27	0.17	3	6	2.18	9	41
제조업(금속)	1.43	30	78	1.12	18	39	3.06	13	57
제조업(기계장비)	1.79	37	97	1.46	24	52	3.49	15	65
제조업(전기전자)	6.17	127	334	5.67	92	200	8.73	37	163
제조업(운송용기계)	1.15	24	62	0.34	6	12	5.24	22	98
제조업(기타제조)	1.15	24	62	0.94	15	33	2.18	9	41
서비스(도매, 소매업)	50.14	1,035	2,711	51.85	844	1,835	41.48	176	775
서비스(음식숙박)	10.69	221	578	10.99	179	389	9.17	39	171
서비스(운수창고물류)	3.52	73	190	3.43	56	122	3.93	17	73
서비스(통신)	0.29	6	16	0.34	6	12	0.00	0	0
서비스(금융보험)	1.94	40	105	2.15	35	76	0.87	4	16
서비스(부동산임대)	2.01	41	109	2.15	35	76	1.31	6	24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10.76	222	582	11.93	194	422	4.80	20	90
서비스(문화오락)	1.58	33	85	1.46	24	52	2.18	9	41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1.36	28	74	1.63	27	58	0.00	0	0
전기, 가스, 수도사업	0.29	6	16	0.17	3	6	0.87	4	16
건설업	1.00	21	54	0.77	13	27	2.18	9	41
총계	100.00	2,065	5,406	100.00	1,628	3,539	100.00	425	1,867

주1, 2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등록기업 등록기간별 비중. 이에 따라 투자금액은 FDI 추정된 금액임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표 9〉 2011년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의 산업별 투자유치 실적(추정금액)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기업체비율 ¹⁾	건수	투자금액 ²⁾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0.82	14	53	0.52	7	20	1.95	8	47
제조업(식품)	0.90	16	58	0.63	8	24	1.95	8	47
제조업(섬유직물의류)	0.41	7	26	0.21	3	8	1.17	5	28
제조업(제지목재)	0.25	4	16	0.21	3	8	0.39	2	9
제조업(화학)	2.71	48	174	1.88	24	72	5.84	23	142
제조업(의약)	0.49	9	32	0.42	5	16	0.78	3	19
제조업(비금속광물)	0.33	6	21	0.10	1	4	1.17	5	28
제조업(금속)	1.64	29	105	0.83	11	32	4.67	18	113
제조업(기계장비)	2.80	49	179	1.77	23	68	6.61	26	160
제조업(전기전자)	6.66	117	426	6.36	83	244	7.78	31	189
제조업(운송용기계)	2.14	37	137	1.25	16	48	5.45	21	132
제조업(기타제조)	0.58	10	37	0.63	8	24	0.39	2	9
서비스(도매, 소매업)	45.07	789	2,882	47.65	622	1,825	35.41	139	859
서비스(음식숙박)	7.81	137	500	7.72	101	295	8.17	32	198
서비스(운수창고물류)	4.28	75	274	3.96	52	152	5.45	21	132
서비스(통신)	0.16	3	11	0.21	3	8	0.00	0	0
서비스(금융보험)	2.71	48	174	3.34	44	128	0.39	2	9
서비스(부동산임대)	2.88	50	184	2.50	33	96	4.28	17	104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13.57	238	868	16.16	211	619	3.89	15	94
서비스(문화오락)	1.64	29	105	1.67	22	64	1.56	6	38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1.32	23	84	1.36	18	52	1.17	5	28
전기, 가스, 수도사업	0.33	6	21	0.31	4	12	0.39	2	9
건설업	0.49	9	32	0.31	4	12	1.17	5	28
총계	100.00	1,751	6,396	100.00	1,305	3,829	100.00	393	2,426

주1, 2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등록기업 등록기간별 비중. 이에 따라 투자금액은 FDI 추정된 금액임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2009년에 유입되었던 투자금액이 2010년에는 증가했다가 2011년에는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1%).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9년에 유입되었던 유입액보다 2010년에 비해 투자금액이 낮은 2011년의 투자금액(추정금액)은 더 큰데 서비스업의 경우 2011년 현재 잔고는 2009년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입금액에

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세계경기와 국내 소비행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소매(유통)업에 감소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입 증가액 Top 3 산업

1. 서비스(음식숙박)
2. 서비스(문화오락), 제조업(전기전자)
3. 제조업(식품)

유입 감소액 Top 3 산업

1. 서비스(도소매 유통)
2. 전기, 가스, 수도
3.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2. 변이-비중 분석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원인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계산을 하였다.

〈표 10〉 2009년 2010년 수도권 분석결과

구분	NS	IM	RS	2010년 수도권 SS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2.513375	4.5596806	3.5271469	5.573452
제조업(식품)	-3.351167	-1.047438	5.7543382	1.3557329
제조업(섬유직물의류)	-5.864543	0.3496309	3.3307921	-2.18412
제조업(제지목재)	-1.675584	-0.523719	-0.160599	-2.359902
제조업(화학)	-7.540126	4.3248383	10.822339	7.6070514
제조업(의약)	-1.675584	-0.523719	-0.160599	-2.359902
제조업(비금속광물)	0	0	0	0
제조업(금속)	-4.188959	3.8874822	18.703868	18.402391
제조업(기계장비)	-18.43142	-28.00874	5.2924035	-41.14776
제조업(전기전자)	-39.37622	41.194687	0.4414329	2.2599046
제조업(운송용기계)	-6.702335	-8.897933	-5.990412	-21.59068
제조업(기타제조)	-6.702335	17.306435	-10.9304	-0.326302
서비스(도매, 소매업)	-531.9978	-242.5383	-68.90348	-843.4396

구분	NS	IM	RS	2010년 수도권 SS
서비스(음식숙박)	-67.02335	129.25494	-10.81479	51.416804
서비스(운수창고물류)	-32.67388	-14.98133	4.6748948	-42.98032
서비스(통신)	-2.513375	2.3324893	-0.321198	-0.502084
서비스(금융보험)	-19.26921	-6.022769	4.2286465	-21.06333
서비스(부동산임대)	-22.62038	-12.68273	-2.631103	-37.93421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87.96814	68.465977	-1.108559	-20.61072
서비스(문화오락)	-8.377918	28.562083	-10.7193	9.4648688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12.56688	-6.266443	13.28513	-5.54819
전기, 가스, 수도	-0.837792	-0.885473	3.5810822	1.8578173
건설업	-5.026751	17.13725	-10.0769	2.0335994

<표 11> 2009년 2010년 비수도권 분석결과

구분	NS	IM	RS	2010년 비수도권 SS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8.016075	14.542492	-6.11778	0.4086366
제조업(식품)	-4.008038	-1.252749	-14.91699	-20.17778
제조업(섬유직물류)	-6.012057	0.3584254	-8.307359	-13.96099
제조업(제지목재)	0	0	0	0
제조업(화학)	-24.04823	13.793494	-21.13071	-31.38544
제조업(의약)	-2.004019	-0.626374	0.6943428	-1.93605
제조업(비금속광물)	-2.004019	44.124599	-11.44528	30.675303
제조업(금속)	-20.04019	18.597908	-42.37674	-43.81902
제조업(기계장비)	-30.06028	-45.68019	-10.37015	-86.11063
제조업(전기전자)	-32.0643	33.545094	0.1537533	1.6345463
제조업(운송용기계)	-28.05626	-37.24713	21.893015	-43.41038
제조업(기타제조)	-2.004019	5.1746777	27.504644	30.675303
서비스(도매, 소매업)	-184.3697	-84.05435	114.76596	-153.6581
서비스(음식숙박)	-26.05224	50.241915	15.864381	40.054051
서비스(운수창고물류)	-24.04823	-11.02637	-12.61652	-47.69112
서비스(통신)	0	0	0	0
서비스(금융보험)	-8.016075	-2.505498	-13.52831	-24.04988
서비스(부동산임대)	-6.012057	-3.370822	3.5747276	-5.808151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22.04421	17.1571	-16.40945	-21.29656
서비스(문화오락)	-2.004019	6.8321212	25.847201	30.675303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10.02009	-4.996496	-35.42785	-50.44444
전기, 가스, 수도	-8.016075	-8.472294	-7.561509	-24.04988
건설업	-2.004019	6.8321212	25.847201	30.675303

<표 12> 2009년 2011년 수도권 분석결과

구분	NS	IM	RS	2011년 수도권 SS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0.656479	6.1280027	1.8388222	7.3103463
제조업(식품)	-0.875305	15.017772	-7.057139	7.0853278
제조업(섬유직물의류)	-1.531784	-13.19043	-6.816422	-21.53863
제조업(제지목재)	-0.437652	4.6894912	-4.701876	-0.450037
제조업(화학)	-1.969436	23.821413	12.057164	33.909141
제조업(의약)	-0.437652	8.9185835	-0.945566	7.5353647
제조업(비금속광물)	0	0	0	0
제조업(금속)	-1.094131	8.1994844	3.7476569	10.85301
제조업(기계장비)	-4.814177	-2.479399	-17.62033	-24.91391
제조업(전기전자)	-10.28483	67.610042	-12.00326	45.321945
제조업(운송용기계)	-1.75061	7.9930025	7.928263	14.170656
제조업(기타제조)	-1.75061	-5.676791	-2.358148	-9.785549
서비스(도매, 소매업)	-138.9547	-515.0335	-199.5992	-853.5874
서비스(음식숙박)	-17.5061	25.691812	-50.14339	-41.95768
서비스(운수창고물류)	-8.534223	12.211789	-16.44599	-12.76842
서비스(통신)	-0.656479	-3.538494	-0.472783	-4.667756
서비스(금융보험)	-5.033003	26.909948	8.8819387	30.758883
서비스(부동산임대)	-5.908308	25.2463	-37.39159	-18.0536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22.97675	211.74577	-12.76091	176.0081
서비스(문화오락)	-2.188262	36.903659	-13.00938	21.70602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3.282393	-9.234286	1.1560014	-11.36068
전기, 가스, 수도	-0.218826	-0.615619	8.5948283	7.7603831
건설업	-1.312957	-2.24374	-9.771516	-13.32821

<표 13> 2009년과 2011년의 비수도권의 분석결과

구분	NS	IM	RS	2011년 비수도권 SS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2.093751	19.544446	-10.60781	6.842888
제조업(식품)	-1.046876	17.961442	10.106099	27.020666
제조업(섬유직물의류)	-1.570313	-13.52221	13.144925	-1.947601
제조업(제지목재)	0	0	0	0
제조업(화학)	-6.281253	75.975214	-49.1653	20.528664
제조업(의약)	-0.523438	10.666737	-1.35281	8.7904885
제조업(비금속광물)	-0.523438	30.898924	-12.14531	18.230177
제조업(금속)	-5.234378	39.22674	-21.60499	12.387376
제조업(기계장비)	-7.851566	-4.043716	21.036657	9.1413748

구분	NS	IM	RS	2011년 비수도권 SS
제조업(전기전자)	-8.375004	55.055285	-19.30873	27.371552
제조업(운송용기계)	-7.328129	33.459056	-35.21973	-9.088802
제조업(기타제조)	-0.523438	-1.697378	1.5716157	-0.6492
서비스(도매,소매업)	-48.15627	-178.4906	157.48074	-69.1661
서비스(음식숙박)	-6.804691	9.986511	63.896087	67.077907
서비스(운수창고물류)	-6.281253	8.9879703	8.3822581	11.088975
서비스(통신)	0	0	0	0
서비스(금융보험)	-2.093751	11.194654	-40.01677	-30.91587
서비스(부동산임대)	-1.570313	6.7099752	68.430247	73.569909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5.757815	53.062024	-63.8851	-16.58089
서비스(문화오락)	-0.523438	8.8274468	19.365857	27.669866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2.617189	-7.36288	-12.14531	-22.12538
전기, 가스, 수도	-2.093751	-5.890304	-22.93181	-30.91587
건설업	-0.523438	-0.894514	19.648129	18.230177

변이-비중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의 <표 10, 11, 12, 13>과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잔고(stock)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지역 총성장(SS)의 결과로 요약한 것이다.

지역 총성장(SS) 상위 Top 3

구분	2009-2010년 비교	2009-2011년 비교
수도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음식숙박업) 2. 제조업(금속) 3. 서비스(문화오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전기전자) 2. 제조업(화학) 3. 서비스(금융보험)
비수도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음식숙박업) 2. 건설업, 제조업(비금속광물), (기타제조) 3. 서비스(문화오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부동산임대) 2. 서비스(음식숙박) 3. 제조업(전기전자)

지역 총성장(SS) 하위 Top 3

구분	2009-2010년 비교	2009-2011년 비교
수도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운수창고물류) 2. 제조업(기계장비) 3. 서비스(부동산임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도매,소매업) 2. 서비스(음식숙박) 3. 제조업(기계장비)
비수도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도매,소매업) 2. 제조업(기계장비) 3.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가스수도, 서비스(금융보험) 2. 서비스(도매,소매업) 3.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표 13>의 결과와 같이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해본 결과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비교년도를 2010년으로 했을 때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양(+)의 효과가 더 큰 산업분야에서 계상되었다. 수도권에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제조업(화학), 서비스(문화오락), 비수도권에서도 같은 산업분야가 속해있다. 변이비중에 대한 계상에서는 국가성장효과가 아닌 지역할당효과와 산업구조효과로 인해 얻은 결과였다. 그 밖의 산업으로는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제조업(전기전자), 서비스(금융보험)에서 양(+)의 결과를 서비스(음식숙박), 제조업(기계장비), 제조업(섬유직물의류)에서 음(-)의 값을 갖게 되었다. 음(-)의 값을 갖는 산업의 경우에는 국가성장효과와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모두에서 음의 값을 얻었다. 비수도권은 서비스(도소매 유통업), 서비스(금융보험)에서 음의 값을 갖는데 도소매 유통의 경우 지역할당효과는 양의 값을 갖지만 나머지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에서는 모두 음의 값을 갖게 된 것이다.

결과 수도권의 경우 서비스(음식숙박), 제조업(금속)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비중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국가성장효과라기 보다는 지역할당효과(RS)와 산업구조효과(IM) 때문인 것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값을 보인다. 그 밖에 양의 값을 갖는 산업은 서비스(문화오락), 제조업(화학), 제조업(전기전자)이 그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서비스(음식숙박), 서비스(문화오락)도 양의 값을 갖는 결과를 얻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할당효과(RS)와 산업구조효과(IM)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FDI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산업별(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로 유입되는 FDI 증감액의 원인을 산업내에서 찾으려 했다.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정해 각 지역의 성장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변이-비중 분석(Shift-Share Analysis)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구조에 대한 원인을 살펴 향후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성장효과(NS)이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성장요인)을 지역의 외적인 부분에서 찾는데 이것은 지역별 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감요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0년과 2011년을

2009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국가 경쟁력의 경우 전 산업에서 모두 음(-)의 값을 얻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여건에 제동이 걸린것으로 세계경기침체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한 국가성장효과는 양(+)의 효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산업구조효과(IM)이다. 이것은 산업내로 전국의 투자 유입의 증감요인이 각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2010년 수도권에서는 서비스(음식숙박),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서비스(문화오락) 부문,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서비스(음식숙박), 제조업(전기전자), 제조업(비금속광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 2011년에는 수도권에서는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제조업(전기전자), 서비스(문화오락), 서비스(금융보험) 등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제조업(화학), 제조업(전기전자), 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업), 제조업(금속)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특히, 서비스업의 문화오락, 음식숙박 부문에서 양(+)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수도권의 경우는 교육, 문화, 오락, 교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서 공장설립 특히 화학, 전기전자, 금속과 같은 제조업의 설립이 용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즉 지역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에 대해 제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 외적인 요인(국가성장요인)보다는 지역 내적인 요인(지역할당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지역할당효과(RS)이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내부 구조로부터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된 원인이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의 입지, 기후 토질, 노동력, 교통(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지역의 하부구조 시설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 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에서는 2010년 수도권에서 제조업(금속), 제조업(화학) 분야에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서비스(도·소매(유통)) 등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의 값을 얻게 되었다. 2011년 수도권은 제조업(화학) 서비스(금융보험), 서비스(공공기타서비스) 등에서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서비스(도·소매(유통)), 서비스(음식숙박), 서비스(부동산임대) 등이 양(+)의 값을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방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의 양적 확대 전략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매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G4F)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추진,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 전략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가 간과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산업 부문별 특화정도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등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경쟁우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프라구축 여부 및 생활기반시설, 정부지원정책(세제 혜택 등),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등을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유치조직운영, 투자인센티브, 국민 정서 및 생활환경, 경제수준,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제도의 정비 및 정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수도권-비수도권) 산업부문별 경쟁력을 특화정도에 따라 산업구성 등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부품, 소재, 서비스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보다 연구 및 생산 등에 관한 직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신개발기술이 시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평가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남광희, 윤성훈(2005), “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경제연구 226호』, 한국은행.
- 이상학(2004),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허브전략연구 04-03』.
- 이상학(2006),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문화산업의 발전”,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9권 제2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5),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5 연차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6.11), “외국인투자기업과 한국경제 : 투자환경, 경제적 효과, 정책적 제안”.
- Ashby, L. D.(1985). Growth Patterns in Employment by County, 1940~1950 and 1950~1960.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urtis. W. C.(1972). Shift-Share Analysis as Technique in Rural Development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May : 257-270.
- Ghali, M. A., M. Akiyama and J. Fujiwara.(1981). Models of Regional Growth : *An Empirical Evalua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1 : 175-190.
- Lee, S. Cheong, K. and Kim, J.(2010). A Decomposition Analysis of FDI Inflow into Korea - Shift share Analysis, (2003-2006).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13-3 : 145-161.
- Stevens, B. H. and C. L. Moore.(1980).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hift-Share as a Forecasting Techniqu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4) : 419-437.

ABSTRACT

Decomposition Analysis of Regional Government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 or Decrease

Sang-Chun, Lee* · Yoon-Sun, Kim**

Promoted in places like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can provide information on which to base investment policy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specific gravity model (Shift-Share Model) In this study, the decrea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erformance using factors looked up in the industry.

The sample period of 2009, 2010, 2011 nationwid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separate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erformance for Industry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Division) was conducted.

Factors to look at the results of the National Growth Effect(NS), the industrial structure effect (IM), local allocation effect(RS) to de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2010 and 2011 non-metropolitan, metropolitan national growth effect(RS) is negative(-) has a value. Because it appears to be the aftermath of the global recession, the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Metropolitan area and the Industrial Mix Effect(IM)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ulture, business, and transportation, etc. in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ies than in non-metropolitan valid environment. In the sector of services (food accommodation, business services, entertainment), We did it, was able to find the function.

However, the Regional Share Effect(RS) be competitiv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metropolitan areas in the metal and chemical sectors have been identified. These results seem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s excellent workforce. Shift-Share analysis technique based on competitive factors of the region, to find the failure has limitations.

Key Words : FDI(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Shift-Share Model, Factors increase or decrease

* Professor, Mokwon University, International of Trade.

** Adjunct Instructor, Kookmin University, Economics & Commerce.